

제41권 55호

December 30, 2018 11:00 am

## 예배와 친교



### 포트웨인 제일 장로교회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Fort Wayne

300 W. Wayne St/ Fort Wayne, IN 46802

담임목사: 안영수 교육목사: 최지상

시무 장로: 최광희, 이보형, 양재선

교회:260-426-7424 팩스: 260-422-5111 사택:260-220-9191 Cell:260-609-6545



First Presbyterian Church

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8년 12월 30일  
오전 11시

인도: 안영수 목사  
반주: 안병국 청년  
†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 나아옴 (THE APPROACH)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87 인도자

인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회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인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회중: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인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회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인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회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인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회중: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인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회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 신앙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개회찬송(Opening Hymn) 찬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다같이  
 Unto the hills around do I lift up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경배와 찬양(Responding Hymn) 찬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소서.보좌로 주여 임하사.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주님을 경배하오니.왕이신 예수여 오셔서.좌정하사 다스리소서  
 Jesus, we enthrone You.We proclaim You our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교회소식(Announcements) 인도자

기도(Prayer of People) 김신화 집사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b>말씀 (The Word)</b>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히브리서 9:27-28, 10:19-25	안병국 청년
찬양(The Anthem)		우리 성가대
설교(The Sermon)	<b>“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대에게 ”</b>	안영수 목사
새해 기도문 작성		다같이
결단의 찬양및 봉헌(Offering)	<b>찬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b> O, turn ye	심현태 김범진 집사
† 파송의 찬양(Benediction Response)	<b>선한 능력으로(뒷면 악보 참조)</b> By Loving Forces	다같이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Hebrew 9:27-28, 10:19-25)**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7 We die only once, and then we are judged. 28 So Christ died only once to take away the sins of many people. But when he comes again, it will not be to take away sin. He will come to save everyone who is waiting for him.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9 My friends, the blood of Jesus gives us courag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20 by a new way that leads to life! And this way takes us through the curtain that is Christ himself. 21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is in charge of God's house. 22 So let's come near God with pure hearts and a confidence that comes from having faith. Let's keep our hearts pure, our consciences free from evil, and our bodies washed with clean water. 23 We must hold tightly to the hope that we say is ours. After all, we can trust the one who made the agreement with us. 24 We should keep on encouraging each other to be thoughtful and to do helpful things. 25 Some people have gotten out of the habit of meeting for worship, but we must not do that. We should keep on encouraging each other, especially since you know that the day of the Lord's coming is getting closer. "

2018년도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선한 능력으로

Kang Score

Words & Music by  
Bonhoeffer Dietrich & Siegfried Fietz

8 E B/D# C#m7 E/B A A/B E A/E  
8 E E B/D# C#m7 E/B A E/G# F#m7  
16 A/B E B/D# C#m7 E/B A A/B B7 E A/E  
24 E E B/D# C#m7 E/B A E/G# F#m7  
32 A/B E B/D# C#m7 E/B A A/B B7 E  
40 A/BB7 E B/D# C#m7 E/B A A/G# F#m7  
48 A/BB7 E B/D# C#m7 E/B A A/B E A/E E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여네  
2. 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 무겁게 내 영 혼짓 눌려도  
3. 주께서 밝히 신작은 초분들이 -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4.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 약 속의 구원 을 이루소서  
-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 다 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 땅 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대하네  
-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 하루 또 하루 가능 새로워 -

# 한 해를 이 고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에도 함께  
하소서



By loving forces... (선한 능력으로 영어가사)

By loving forces silently surrounded,  
I feel quite soothed, secure, and filled with grace.  
So I would like to live these days together,  
and go with you into another year.

Still matters of the past are pressing our hearts  
and evil days are weighing down on us.  
Oh Lord, to our souls, so scared and sore,  
give rescue, as it's that you made us for.

And when you pass to us the bitter chalice  
of suffering, filled to the brim and more,  
we take it, full of thanks and trembling not,  
from this, your caring and beloved hand.

But if you want to please us, over and again,  
with our shining sun and wondrous world,  
let us muse on what is past, and then we shall,  
with our lives, in all belong to you.

Warm and bright be our candles' flame today,  
since into gloom you brought a gleaming light,  
and lead again us, if you will, together!  
We know it: you are beaming in the night.

When silence now will snow around us ev'ry-  
where,  
so let us hear the all-embracing sound  
of greater things than we can see and wider,  
your world, and all your children's soaring hail.

By loving forces wonderfully sheltered,  
we are awaiting fearlessly what comes.  
God is with us at dusk and in the morning  
and most assuredly on ev'ry day.

# 송구 영신 예배

2018년 12월 31일 저녁 7시

인도: 안영수 목사

반주: 안병국 청년

## 회상과 찬양

예배에의 초대 ..... 전도서 3:1-9.....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 301장“지금까지 지내 온 것”..... 다같이

## 겸손히 드리는 회개

성서교독 ..... 93편..... 다같이  
공동의 참회고백 ..... 다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범죄하였고, 길 잃은 양처럼 당신의 길에서 벗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지않아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성은 병들고 비뚤어지게 되었습니다.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내 욕망이 말하는 대로 말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열심히 찾아 다녔지만, 나의 잘못에는 애써 모른 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갈라진 사회, 외면하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되게 하는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기 싫어서, 함께 험담하며 함께 불평하며,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마저 갈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현재의 안락함이 최고의 축복인 것으로 여기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는 커녕, 나의 욕구에 방해가 될까봐 복음을 부끄러워 하고,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고, 거역하며,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주소서.

지난 한해 동안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족이라는 핑계로 누구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들에게 냉담했고, 불친절하였으며,  
때로는 거친 말도 하였습니다.  
가족이니 당연히 이해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만 좋아했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주소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주소서.

개인의 참회기도 ..... 소리내어..... 다같이  
용서의 선언 ..... 시 27:1, 30:5 ..... 인도자  
특별 연주 ..... 말은이

##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나눔

첫번째 약속 .....	골로새서 3:12-17.....	최지상 목사
두번째 약속 .....	이사야 60:1-7 .....	안영수 목사
기도 .....		안영수 목사

## 약속의 다짐

새해의 소원기도 .....		다같이
촛불 점화 .....		다같이
광고 .....		안영수 목사
감사의 찬송 .....	선한 능력으로 .....	다 같이
축도 .....		최지상 목사
후주 .....		반주자

## 친교와 나눔 (친교실로 이동하여 주세요)

새해인사 .....		다 같이
교제 .....	만남과 대화 .....	다 같이

### 골로새서 3:12-17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라 기록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2)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2 God loves you and has chosen you as his own special people. So be gentle, kind, humble, meek, and patient. 13 Put up with each other, and forgive anyone who does you wrong, just as Christ has forgiven you. 14 Love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t is what ties everything completely together. 15 Each one of you is part of the body of Christ, and you were chosen to live together in peace. So let the peace that comes from Christ control your thoughts, And be grateful. 16 Let the message about Christ completely fill your lives, while you use all your wisdom to teach and instruct each other. With thankful hearts,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to God. 17 Whatever you say or do should be done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s you give thanks to God the Father because of him.

### 이사야 60:1-7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6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1)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1 Jerusalem, stand up! Shine! Your new day is dawning. The glory of the LORD shines brightly on you. 2 The earth and its people are covered with darkness, but the glory of the LORD is shining upon you. Nations and kings will come to the light of your dawning day. Crowds Are Coming to Jerusalem 3 The LORD said: 4 Open your eyes! Look around! Crowds are coming. Your sons are on their way from distant lands; your daughters are being carried like little children. 5 When you see this, your faces will glow; your hearts will pound and swell with pride. u) Treasures from across the sea and the wealth of nations will be brought to you.

6 Your country will be covered with caravans of young camels from Midian and Ephah. v) The people of Sheba w) will bring gold and spices in praise of me, the LORD. 7 Every sheep of Kedar will come to you; rams from Nebaioth x) will be yours as well. I will accept them as offerings and bring honor to my temple.

**알리는 말씀 (Announcements)**

**1. 감사**

- ◇ 한 해동안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해 주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한달동안 “내생애 마지막 한달” 모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 ◇ 오늘은 올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 ◇ 예배 시간에 준비된 기도문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목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 ◇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대되었으니 참여하여 주세요.

**3. 오늘 교회학교 달란트 잔치**

- ◇ 오늘 점심 친교 시간에 교회 학교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 ◇ 이 시간 동안 교회학교 학생들이 상품으로 받은 달란트로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4. 내일 (12/31)송구 영신 예배**

- ◇ 12월 31일(월)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 ◇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예배 시간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진행됩니다.
- ◇ 목회자에게 새해 축복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가족이나 개인은 6시 15분 부터 예배당으로 와주세요.

**5. 다음 주일 (1월 6일) 예배 안내**

- ◇ 다음 주일은 새해를 맞이하여 성찬식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6. 패밀리 스키 트립**

- ◇ 우리 교회 CYF(Children, Youth, and Family)사역팀은 1월 29일(주일) 1부 영어 예배 (아침 9시)를 마친 후 미시간에 있는 Swiss Vallley로 스키트립을 갑니다.
- ◇ 관심있는 분은 최지상 목사님께 문의하여 주세요. (저녁 8시 30분경 포트웨인 도착 예정, 스키장 이용료 일인 당25불 (점심 저녁 식사 비용 제외)

**7.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 ◇ 매일 성경: 1월 2월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양재선 장로님을 통해 구입하여 주세요.(권당 5불)
- ◇ 토요 모임: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 아침 예배와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9시 10분까지: 매일 성경 나눔 (차일드 케어가 제공됩니다)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12/30	김영연	김범진	심현태/김범진		이형우/남성성도
1/6	인도:이보형 기도:양재선	김현주	이형우/양재선	최광희, 이보형	새해맞이 공동식사/여성 성도
1/13	이형우	심소희	이형우/양재선		구역 모임
1/20	김동중	김신화	이형우/양재선		하이디/청년부
1/27	심현태	샤이엔	이형우/양재선		김현선/남성 성도